

<들어가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어사용설명서>라는 전자책(E-book)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써보는 책입니다.

평생 처음 써보는 전자책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독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전자책 시장에서 영어학습과 관련된 자기계발 분야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학습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전자책들과 비슷한 컨셉의 내용을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만의 남다른 경험과 독창적인 시각을 담은 전자책을 이번에 발행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깊이, 분석, 통찰, 의견, 경험담, 시각 등에서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전자책을 처음 써보는 입장에서 AI(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전자책은 너무 잘 쓰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되도록 빨리 일단 완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조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전자책은 가능하면 단숨에 써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맞춤법이나 어법 등에서 오류나 개선필요성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향후에 차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에 구매 받지 않고, 전자책을 일단 최대한 빨리 써보고 발행해보는 점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

<영어사용설명서>를 이번에 집필합니다만, 관련 시리즈로 <미국사용설명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물>이나 <미국의 정치인>이라는 전자책들도 나중에 써보려고 생각은 미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책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학술서적이거나 논문처럼 딱딱한 느낌을 주기 보다는 최대한 실용서적 컨셉에 부합하는 경험담 위주의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쓴다는 것이 단순히 알팍한 책을 쓴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깊이있게 들어가는 분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소 무거운 접근 방식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듯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오늘 이처럼 인사를 드리게 되어 여러모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애 처음 쓰는 책인지라, 여러 생각이 듭니다.

모든 단상들을 뒤로 제쳐두고, 이번에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단숨에 이번 전자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http://www.koreabest.org)

제1장. 영어공부에 대해.

첫번째 챕터로써, 영어에 관한 단상을 말해봅니다.

영어공부를 할 때, 영어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영어관련 교재들과 학습방법이 넘쳐납니다.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 듯 합니다.

영어공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학습방법과 학습자료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이유일 겁니다.

그에 대한 저의 대답과 입장을 이번 전자책 제1장에서 간단히 먼저 제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공부에 대한 저의 입장:

<영어공부 하지 마라!>

이것이 제가 영어를 수십년 공부해보고 느낀 결론(중간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번에는, 오늘은, 짧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술 분야의 고수들은 초보자들과 이미 정신자세가 다른 듯 합니다.

영어 고수가 되려면 마음자세, 정신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영어를 외국어로서 받아들이고, 또는 제2외국어로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초장부터 꺾어버려야 합니다.

내 나라 말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로서, 영어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공유해 봅니다.

저는 그 단계까지 오는데 수십년 이상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다른 한국인들이 배우는 방법으로 영어를 공교육에서 배운 것은 동일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일반인들과 다른 궤적을 보일 것입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나중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지금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영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 시점은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약 5년 정도 이후부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시점 이전에는 영어가 저에게도 영어로 다가왔지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수도 있지만, 차차 얘기를 풀어갈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결론을 제시합니다.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어공부를 즉각 중단하세요.

<영어공부 그만해라>.

이것이 영어공부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어때요?

차원이 다르지요?

제2장. 영어듣기에 대해.

영어듣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영어듣기를 생각해보니, 예전에 대학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해서 틀어가며 AP통신이나 그러한 뉴스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어라는 분야 자체가 현재의 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라는 운동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터득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어라는 분야 자체가 하루 아침에 정복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서양 역사를 보면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듣기도 한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출과 공부가 필요하지요.

요즘에는 영어듣기에 대한 정보가 마치 홍수가 난 듯이 인터넷을 필두로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영어듣기에 관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한가지입니다.

영어듣기가 짧든, 길든, 그 내용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한가지만 생각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영어듣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절대로 함몰되지 말고 일단 큰 틀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그런 버릇을 들이면, 영어듣기 공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것입니다.

입니다.

말처럼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ですよ.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 조언은 한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한마디 덧붙입니다.

위 조언은 일반적인 영어듣기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 상대방이 있는 영어듣기 상황이라면, 한가지 조언을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즉,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말고, 제일 큰 틀에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제일 큰 줄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영어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3장. 영어말하기에 대해.

영어말하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영어말하기에 대한 상황이 여러가지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획일화된 방법이나 조언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말을 되도록 많이 해보라. 문법에 신경쓰지 말고 외국인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타당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조언을 이번에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마저 있습니다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요.

영어회화 중급자들이나 고급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말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 오늘 조언은 초급자 대상입니다.

<말을 줄여라>

<말을 천천히 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분명히 얘기해라>

이것이 제 조언입니다.

이것이 영어말하기 초보자들에 대한 제 조언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천천히 뜬을 들이면서 영어를 말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자 조언입니다.

(첨언: 영어초보자들에게 맞는 조언이지만, 사실 영어가 고급으로 갈 수록 이 조언 내용이 더 필요하고, 더 들어맞습니다. 제 경험이자 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얘기하면, 필요 이상으로 얘기가 꼬여들기 때문에 여기서 줄입니다.)

제4장. 영어읽기에 대해.

영어읽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자책은 <영어초보> 계층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보에 맞는 영어읽기에 대한 제 조언입니다.

시중에는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닥치는 대로> 영어로 된 것들을

읽어라는 식의 학습방법이 많습니다.

저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초보때는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책>을 정해서 한권을 제대로 숙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문종합영어를 비롯해서 그런 기본서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떠날 때는 그런 책들보다는 많이 소프트화된 책들이 시중에 많았습니다.

그럼 좋은 책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학습자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은 <책을 마구잡이로 읽지 마라>입니다.

<좋은 책>, 즉 <양서>를 신중하게, 최대한 신중하게, 최고로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 기본서를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영어실력을 최고로 집중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즉, 그 어떤 단계에 오르기 전에는 읽는 내용과 종류를 최소화 하고, 그 단계 이후부터는 내용을 확대해도 상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과 <시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좋은 내용의 것을 읽기도 부족한 시간에, 좋지 않은 내용의 것들을 읽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정말 귀중한 자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시간>이 <영어공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까지

합니다.

제5장. 영어쓰기에 대해.

영어쓰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영어쓰기, 즉 영어작문은 결국 <작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현이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글쓰기가 영작문의 본질입니다.

그럼 글쓰기에 대한 공부나 사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작문이라는 것은 <사고> 또는 <사고력>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정보나 의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문자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자매체로 표현된 것을 누군가 읽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영어읽기가 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좋은 생각, 좋은 사고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좋은 작문에 대한 기준점들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창의성(독창성)>, <충실성>, <정확성>, <성실성>, <경제성>, <규범성>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작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두마디로 조언을 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한곳에 집약되어 표현되는 것>이 작문 분야입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 영어작문에 대한 조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은 작문>은 결국 <좋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남들처럼 설익은 내용을 책이나 전자책으로 쓰고자 했다면, 훨씬 이전에 제 첫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에 대한 제 스스로의 기준에 미쳐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첫번째 전자책을 오늘에야 집필하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10-20대도 ‘겁도 없이’ 책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걱정이 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꼭 그런 점들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의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 한정하자면, 저는 <좋은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새 용어로 백세시대에서 반평생 동안 책을 써보지 못했네요.

대학시절이 떠오릅니다.

미국인 교수님이 수업하던 영어회화작문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영어작문 수업이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전공자끼리 누가 학기말에 A를 맞게 될 것인가가 농반진반의 대화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이 강도가 엄청 셧었고 학점도 짜기로 유명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돌아볼 때, 그 수업이 제가 들어본 수업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웠습니다.

수업 퀄리티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제 모교라서 팔이 안으로 자동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라고 회고됩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여러 대학이나 대학생들을 구경해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더 들었습니다.

그 수업이 얼마나 강도가 션었냐면, 정말 앓은 자리에서 식은 땀이 난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게 될 정도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그 수업에서 A+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모범생이던 1년 선배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A0를 맞았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는 나중에 정보기관에 직장을 구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영어작문은 정말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 잡설로 오늘은 대신합니다.

제6장. 영어문법에 대해.

영어문법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영어문법은 전통적으로 공교육에서 강조가 되다가, 영어회화에 대한 교육수요가 시류를 휩쓸면서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간과되기 시작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한동안 영어회화가 원활하게 특정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모가 영어문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본질적인 측면을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영어문법은 중요합니다.>

한편 각 개인의 영어실력이나 단계,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법실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 정도의 문법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획일적인 해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영어문법이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제7장. 영어에 대해.

영어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제1장에서는 영어공부에 대한 정신자세, 마음자세를 큰 틀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번장에서는 영어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세계무대에서 차지한 위치에 대해서 되새겨 봅니다.

이미 영어라는 자산은 <계급자본>, <문화자본>, <지식자산>, <정보자산>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어떠한 남의 나라의 한가지 외국어라는 수준은 진작에 뛰어넘었고 다른 100가지 이상의 다른 나라 외국어들과는 차원이 다른 입지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로 통하는 <창(window)>, <열쇠(key)>와도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영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의 남은 평생에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종류와 빈도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단계에 이르는 <영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토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어를 못하면 <자기만 손해>인 세상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나 치러야 할 대가도 각자의 몫이겠지요. 당연히도.

제8장. 미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미국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자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국사용설명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크게 났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어느 전공 교수님이 어느 논문인가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납니다.

미국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될 수가 없는 사회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이러쿵 저러쿵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국은 너무 다양한 모습을 가진 나라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이니까요.

미국은 정말로 크고 다양한 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오해나 편견, 인식의 오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통념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나, 직관적으로 막연히 느끼는 것들과 다른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9장. 자신감에 대해.

영어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가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어디에선가 물려받고 영향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언어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막연히, 근거없이 자만감을 가지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부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자신감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제10장. 알파벳에 대해.

영어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알파벳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떠한 밑천이 들기 마련입니다.

최소한의 도구나 준비사항이 필요한 법이지요.

그런데 영어공부에는 알파벳만 있으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요새 새롭게 느낍니다.

영어공부 몇십년 해보고 새삼스레 알파벳에 대해 새롭게 느껴집니다.

영어가 아무리 복잡하고 영어단어가 수도 없이 많아도 결국은 알파벳 범위 안에서 놀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이 배운 알파벳이 영어공부의 (어떤 면에서는) 전부입니다.

그 뻔한 것 가지고, 단어 중간에 이러저리 순서를 바꾸고 갯수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용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파벳 안에서 놀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파벳만 알면 누구나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첫출발, 첫걸음을 잘 댄 것입니다.

그럼 점에서 자신감과 편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농담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몇십년 겪어보고 농담이 아닌 진담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가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알파벳이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나오며>

지금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 노트북으로 단숨에 글을 써봤습니다.

<들어가며>, <전체 10장>, <나오며>로 구성된 전자책을 똑딱 완성했네요.

보기에 따라 대단히 허술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책을 쓰는데 대략 50년이 걸렸네요.

당장에 시간이 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나고 기회가 나는대로,

여러 요소를 보완하고 덧붙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SI의 충고대로 첫번째 전자책은 욕심을 내지 않고, 완성하는데 최우선 목표와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만의 분야에서 어떤 내용을 축적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들을  
엮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애 첫번째 전자책을 쓰다보니 커피잔에 커피도 다 사라졌네요.

남모르는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작지만 큰 걸음을 떤 기분입니다.

2025년 4월 20일,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http://www.koreabest.org)